

# 영국 중소기업금융 동향과 향후 주요 이슈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윤 경 수 (yksoo@kdb.co.kr)

- ◆ '23년 영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통화 긴축 여파로 인해 전년대비 소폭 축소될 전망이다이며, 신용위험 상승, 고금리 지속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가능
- ◆ ①넷 제로 이행, ②디지털·AI 활용, ③고금리의 뉴노멀화, ④경제 역동성 제고의 4가지 이슈가 향후 영국 중소기업금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
□ '23년 영국 중소기업 자금조달 규모는 통화 긴축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전년대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, 고금리 수준 지속 등 비우호적 조달 여건 상존

○ 코로나 발생 직후('20년) 큰 폭 증가하였던 영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규모\*는 '23년에는 대출 및 주식조달 감소\*\*로 전년대비 소폭 축소될 전망

\* 은행 대출, 자산금융(리스, 할부구매 등), 주식조달의 합계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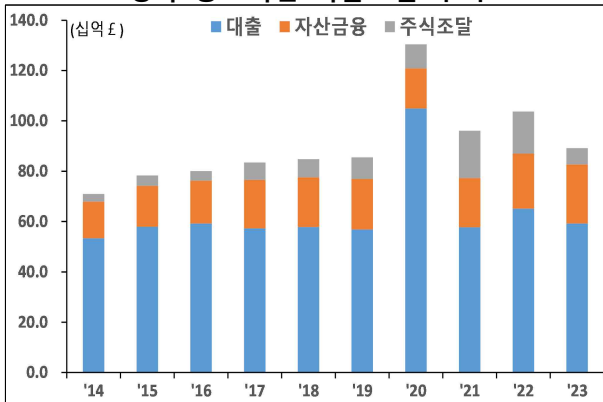
\*\* 주식조달은 1~3분기 기준 금액이나, 추세 지속 가정시 연간 총액이 '19~'20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자금조달 규모도 전년대비 감소 전망(British Business Bank)

- 은행 대출은 차입비용 상승,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대출수요 위축 등이, 주식조달은 고평가(Over-valuation)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이 감소 원인

○ 기업 신용위험 상승으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고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조달 측면에 있어 부정적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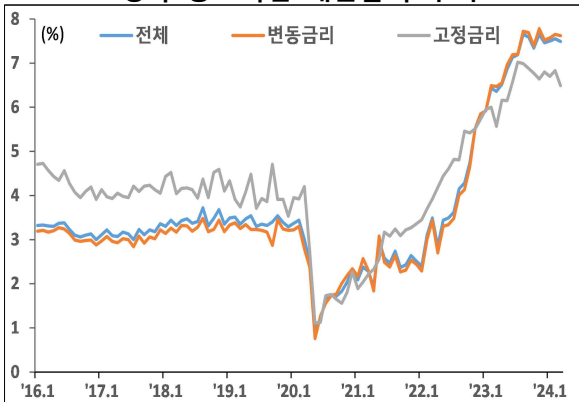
-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'22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'24.3월 7.5% 기록

영국 중소기업 자금조달 추이



주 : '23년도 주식조달은 1~3분기 기준  
자료 : British Business Bank

영국 중소기업 대출금리 추이



자료 : Bank of England, British Business Bank

□ **British Business Bank는 향후 10년간 ①넷 제로 이행, ②디지털·AI 활용, ③고금리의 뉴노멀화, ④경제 역동성 제고를 중소기업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로 제시**

- (넷 제로 이행)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안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·정책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앞 자금공급(Debt and equity finance) 증가가 요구
  - (민간금융) 신기술 개발, 상업화 및 스케일업을 위한 지분투자가 중요시되기에 향후 클린테크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\*
    - \* '23년 1~3분기 넷 제로 연관 벤처투자 금액(건수)은 전년동기대비 45%(18%) 감소
  - (정책금융) British Business Bank가 기후변화 혁신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기업 탄소배출량 측정 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정책금융도 중요 역할 수행 중
- (디지털·AI 활용) 금융산업내 AI 활용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금융 가용성 (Availability) 향상과 금융비용 저감 기대
  - 최근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영국 금융기관 대부분이 이상거래 탐지, 리스크 모델링, 마케팅 등에 예측 AI(Predictive AI)\*를 이미 사용 중
    - \* 통계 분석을 사용하여 패턴을 식별하고 행동을 예측하며 향후 이벤트를 예측하는 AI
  - 향후 생성형 AI(Generative AI)\* 적용이 확대됨으로 인해 재무적인 이유로 배제되거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조달 여건이 개선될 전망
    - \*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AI(British Business Bank에 따르면 기업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기업별 특성에 적합한 대출 제안도 가능)
- (고금리의 뉴노멀화) '24년 이후 향후 10년간의 금리 수준이 이전대비 높을 것\* 으로 보여 기업, 금융기관, 실물경제에 연쇄적 악영향 예상
  - \* 영국 기준금리 추이 및 전망(Bank of England, %) : 0.1~0.75('10년대) → 1.0('22.5월) → 3.0('22.11월) → 5.25('23.8월) → 5.2('24.2분기) → 4.5('25.2분기) → 4.0('26.2분기) → 3.7('27.2분기)
  - 향후 상당 기간 고금리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기업 대출수요 감소, 부실 확대 등은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감소와 신용할당으로 연결되며,
  - 실물경제 측면에 있어서는 투자 축소와 경기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
- (경제 역동성 제고) 중소기업금융은 향후 10년간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중요 역할 담당
  - 영국의 일자리 재배치율\*이 '10년대 들어 이전 10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음을 감안시,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\*\*
    - \*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을 합한 것으로서 일자리 변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
    - \*\* British Business Bank는 Start-up Loans, Angel Co-fund 등 상품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 지원 중

-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금리 수준 지속, 그린·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등 영국과 유사한 기업 경영 환경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
- 미래 경제·금융 이슈와 금융지원 필요성을 제시한 영국 사례를 감안시, 혁신·벤처기업 육성, 시장 안정 등 정책금융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 지속 필요